

선제 스리런·환상 수비…NC 구한 ‘영웅 나성범’

넥센 정대현 상대 3점홈런, NC 공격 숨통
직선타 캐치·악송구 커비 고비마다 호수비
공·수 맹활약으로 NC 2위싸움 희망 되살려

NC는 11일 롯데전부터 16일 KIA전까지 총 6경기 5연패를 당했다. 그 사이 군건해 보였던 2위 자리까지 두산에 내줬다. 17일 한화전에서 승리했지만 18~19일 한화와 넥센에 다시 2연패를 당했다.

20일 고척 넥센전은 패한다면 다시 연패가 길어질 수 있는 위기였다. 여전히 4위권과는 4게임 이상 차이가 있지만 8월 들어 연승이 단 한차례 밖에 없을 정도로 최근 흐름이 나빴다.

그러나 이날 NC는 1회초부터 중심타자 나성범의 홈런이 터지면서 4-3으로 승리,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1회초 2번 박민우와 3번 재비어 스크릭스의 연속안타로 이어진 1사 1·2루. 나성범은 넥센 선발 좌완 정대현을 상대로 볼카운트 1B-1S 3구째 시속 122km 몸쪽 높은 코스 체인

지업을 때려 우측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기록했다. 시즌 19호 홈런이다. NC는 곧이어 터진 이호준의 1점 홈런을 더해 1회초 공격부터 4-0으로 앞서나가며 주도권을 잡았다.

NC는 2회 2점, 3회 1실점하며 1점차 추격을 허용했지만 고비 때마다 나성범의 호수비로 추가 실점을 막았다. 5회말 수비는 대량 실점을 막아낸 결정적 순간이었다. 나성범은 5회말 2사 만루 장영석의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내며 이닝을 끝냈다. 포구가 조금만 늦었어도 싹쓸이 3타점 적시타가 될 수 있는 빠른 타구였다. 아웃이 되는 순간 장영석이 아쉬움에 헬멧을 집어 던질 정도로 타구가 좋았다.

7회말에도 나성범의 수비가 빛났다. 나성범은 2·3루간 런다운 상황이 나오자 우측 펜스 앞에서 2루 뒤까지 뛰어 악송구를 커버하며 추가 위기를 막아 넥센의 추격지지를 꺾었다. 두산과의 2위 싸움에서 밀리던 NC가 투타에 걸친 나성범의 활약으로 모처럼 다시 희망을 되살렸다.

고척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NC 나성범이 20일 고척 넥센전에서 1회 결정적 3점홈런을 터뜨렸다. 결국 NC는 나성범의 팀이다.

고척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영건들의 비상…마운드 ‘세대교체’ 탄력

베이스를 브레이크

최원태, 20세불구 신에 중 가장 먼저 10승 박세웅 방어율 토종 1위 롯데 에이스 우뚝 함덕주 후반기 방어율 2.76·5승무패 활약 9회에도 150km 장현식, 군복무까지 마쳐

KBO리그는 한동안 정체돼 있었다. 특히 마운드의 세대교체가 더뎠다. 그러나 올해 젊은 피들이 대거 등장해 미래의 희망을 밝혀주고 있다. 이미 두 자릿수 승리를 챙긴 넥센 최원태(20)와 롯데 박세웅(22), 그리고 10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두산 함덕주(22)와 NC 장현식(22)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1995년 이후 태어난 투수라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우선 이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제일 많은 승리를 거둔 최원태가 눈길을 모은다. 19일 고척 NC전에 선발등판해 6.1이닝 5안타 3볼넷 9삼진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올 시즌 22경기에 선발로만 등판해 11승6패 방어율 4.62를 기록 중이다. 특히 6월 8일 SK전 승리 후 최근 7연승 행진 중이다. 전반기 16경기에서 7승5패 방어율 5.33을 기록했는데, 후반기 4경기에서는 4승 무패 방어율 2.75로 훨씬 더 좋다.

서울고를 졸업한 뒤 2015년 넥센 1차지명을 받고 프로에 데뷔한 그는 지난해 2승3패 방어율 7.23을 기록했지만 올해 선발 로테이션에 완전히 자리 잡아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다. 무브먼트가 좋은 시속 145km 안팎의 투심패스트볼을 주무기로 넥센 토종 에이스로 급상승했다. 외국인투수를 포함해 넥센 최다승이기도 하다. 이제 약관의 나이라는 점에서 미래를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롯데 박세웅은 가장 먼저 주목받았다. 경북고 출신으로 2014년 kt 1차지명을 받고 입단한 뒤 2015년 롯데로 트레이드된 그는 올 시즌 10승4패 방어율 3.08을 기록 중이다. 시속 150km 안팎의 강속구와 포크볼, 슬라이더, 커브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2015년 2승11패 방어율 5.76, 2016년 7승12패 방어율 5.76을 기록하며 경합을 쟁다다 이제 롯데 에이스일 뿐 아니라 KBO리그



넥센 최원태 롯데 박세웅 두산 함덕주 NC 장현식

를 대표하는 투수로 성장했다. 승운이 따르지 않는 점이 더 안타깝다. 실제로 박세웅은 올 시즌 방어율 부문에서 토종 투수 중 가장 좋다. 외국인투수까지 포함하더라도 kt 라이언 피어밴드(2.87)에 이어 2위다. 팀 내 최다승에 최다이닝(143이닝)을 기록 중이다.

함덕주는 18일 잠실에서 선두 KIA를 상대로 6.1이닝 4안타 무사구 4삼진 1실점의 역투로 시즌 8승째(7패·방어율 3.80)를 따냈다. 전반기엔 3승7패 방어율 4.23이었는데, 후반기만 따지면 5승 무패로 전체 투수 중 다승 1위다. 후반기 방어율 또한 2.76으로 두산 투수 중 가장 좋다. 2013년 원주고를 졸업한 뒤 5라운드 지명으로 두산 유니폼을 입은 그는 그동안 미완의 대기였지만 갈수록 안정감이 넘친다. 중지와 약지를 많이 벌리는 그만의 독특한 체인지업을 장착한 그는 올해 생애 첫 10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좌완이라는 이점까지 갖추고 있다.

여기에 NC의 미래로 꼽히는 장현식도 빼놓을 수 없다. 선발(15경기)과 볼펜(9경기)을 오가면서 시즌 7승7패 방어율 4.50을 기록 중이다. 특히 13일 잠실 두산전은 그의 잠재력을 알린 한판이었다. 완봉승 눈앞에서 9회 2실점(비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지만, 그가 경기 후 흘린 눈물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다. 9회까지 시속 150km를 넘는 강속구를 뿌릴 정도로 스테미너와 파워가 매력적이다. 서울고 출신으로 2013년 NC 1라운드 지명을 받은 그는 경찰야구단에서 군복무까지 마쳤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한화 98일만에 무실점, 윤학길 코치 농담 덕분?

19일 롯데전 마운드 올라 “완봉주 마사지”

“완봉주” 좀 마사지해 해줘.”

한화 윤학길(56) 투수코치는 19일 대전 롯데전 9회초 2사 2·3루 위기에서 마운드에 올라 투수 정우람과 포수 최재훈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2점 차 앞선 상황에서 편안한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다.

상황은 이랬다. 한화는 2-0으로 앞선 9회 2아웃을 잘 잡은 정우람이 박현도에게 볼넷, 김동한에게 2루타를 맞아 2·3루 위기에 몰렸다.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전패(38회)를 당한 터라 불안감이 엄습했다. 상대 롯데는 올 시즌 가장 역전승이 많은 팀. 결국 윤 코치가 흐름을 끊기 위해 마운드에 올랐고, “완봉주 좀 마사지해 달라”고 농을 던졌다. 늘 불안한 마운드 탓에 어

려움을 겪던 한화 입장에서 올 시즌 4번째 무실점 승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터다. 정우람이 후속타자 신본기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덕분에 윤 코치의 바람은 이뤄졌다.

한화 이상근 감독대행은 20일 대전 롯데전에 앞서 당시 상황을 들려줬다. 그는 “윤 코치가 긴장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결결 웃었다. “그 덕분에 경기가 끝나고 윤 코치와 간단하게 완봉주를 마셨다”고 밝혔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이 감독대행은 오래간만의 무실점 승리에 대한 기쁨이 커 보였다. 실제로 이 감독대행 체제에서 무실점 승리는 19일이 처음이었는데, 올 시즌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5월 13일 잠실 LG전(10-0 승리) 이후 98일 만이었다.

대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로또 758회 1등 당첨후기 공개! 20억 1등 당첨 비결은?

로또플레이 분석번호 받아 구매한 결과.. 20억 1등 당첨! 가입문의 1666-6645

신세 당첨인증!

758회 20억 1등
골드회원 가입 2개월만에 당첨!

로또 6/45 제 758 회
발행일 : 2017/06/08 (목) 22:47:20
추첨일 : 2017/06/10 (토) TR:1835302388

로또플레이는 1등 당첨 결과로 말합니다.

수	동	03	12	17	26	30	44
수	동	04	06	13	16	24	39
수	동	05	09	12	30	39	43
수	동	13	17	25	29	34	39
수	동	02	16	21	31	37	39

진주성 (남성, 30대) 1년제 골드회원!
지인이 추천한 “로또플레이” 믿고 구매!

로또 1등 당첨자 진 씨는 "로또플레이 측에서 보내준 1등 당첨번호를 실제 구매를 한 후 지난 10일 볼국사 극락전에 있는 복 돼지를 찾아가 1등에 당첨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저녁 8시경 놀라운 일이벌어졌다. 번호 6개가 모두 일치 로또 1등(20억 7천8백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이에 진 씨는 복 돼지 행운을 받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로또플레이에서 보내준 번호로 꾸준히 구매했던 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로또플레이의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로또 1등 당첨자라고 밝힌 50대 여성이 40억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이동시에 당첨된 인증 사진과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의 신뢰성과 분석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또플레이'는 여행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업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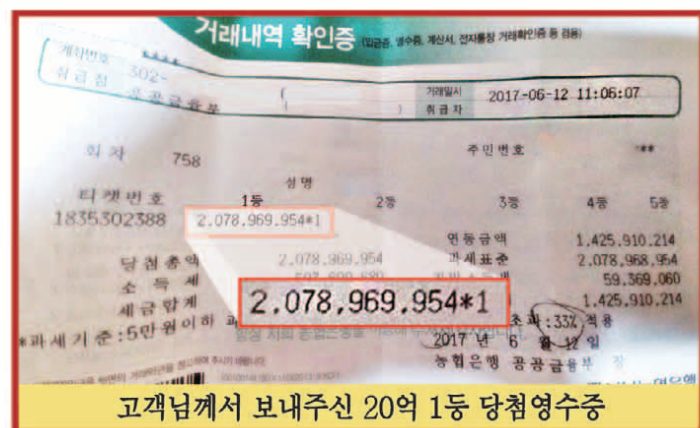
정 씨(47세, 여자) 역시 골드회원으로서 가입하고 1등 분석 번호를 문자로 제공받은 지 5일 만에 로또 1등(12억 6천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며 큰 화제를 모았다.

로또플레이는 국내 최단기간 실제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1등 182회, 2등 910회, 3등은 28,801회를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영수증과 거래내역서 까지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까지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1등, 2등, 3등 당첨 후기들은 로또플레이(lottoplay.c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로또플레이'는 골드회원으로서 가입하신 회원님들께 10년이 넘는 분석 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1등 분석시스템 (통계기반)을 통해 분석번호를 매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 게임/수량 변경 가능)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비용은 6개월 62,000원, 1년 88,000원, 3년 158,000원으로 **대표번호 1666-6645** 전화 한 통으로 가입이 편하다. (카드 무이자 5개월 할부 가능)

홈페이지: LOTTOPLAY.CO.KR



로또플레이 가입문의 1666-6645